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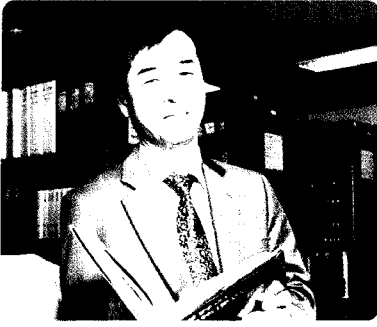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재안전분야 국가표준 선진화에 기여

2008년 지난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49,631건이며, 인명피해는 2,716명, 재산피해는 3천 8백억의 원에 이르며 해가 갈수록 대형화재와 피해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방재시험연구원은 화재예방을 위한 기술의 선진화, 표준화를 통해 화재안전 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문
방재시험연구원
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

전세 | 임대 | 리노





▶ 이유식 업무지원팀 팀장

최근 대형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화재안전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화재안전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할 수 있는 화재안전 국가표준 선진화와 민간 표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복영 방재컨설팅팀 팀장

화재로 인한 피해는 건물의 고층화, 복합화가 이루어지면서 한 번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방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위험관리 기법을 토대로 방재컨설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태엽 교육사업팀 팀장

화재를 대비한 교육은 그 특성상 실제 상황을 연출해 내기 어렵습니다. 체험교육이 아닌 일반 이론교육만으로는 실제 화재가 발생하거나 발생을 예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실습실을 활용한 수준별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년, 보험산업의 과학화와 국가 화재 안전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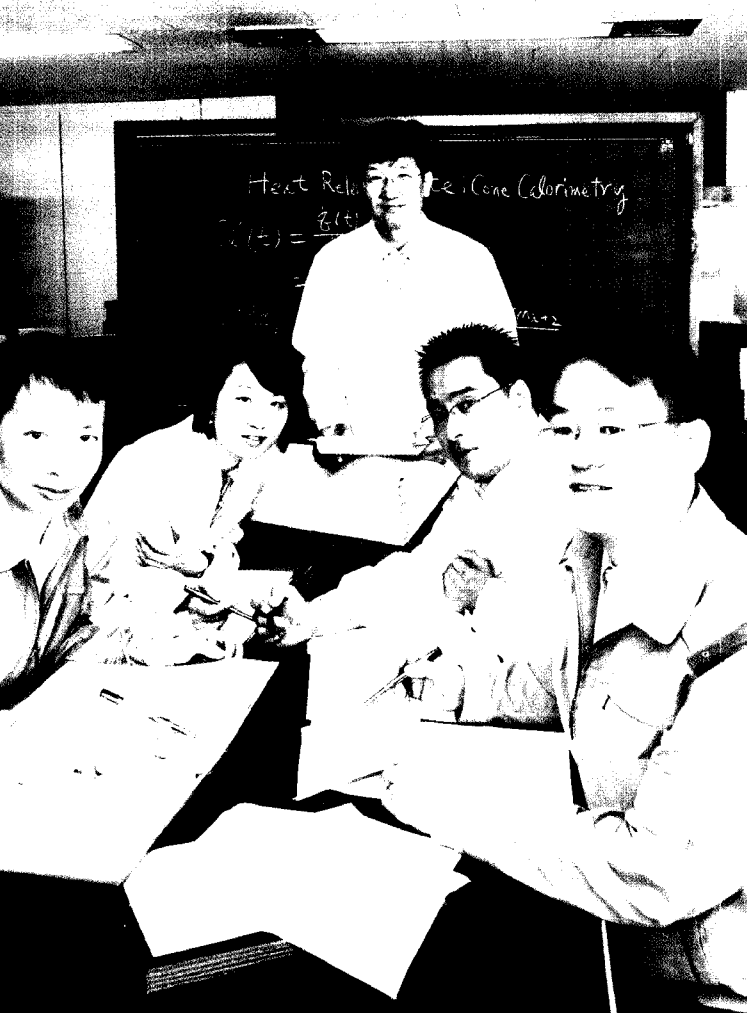
방재시험연구원은 화재보험협회의 설립근거법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보험법)에 의한 화재예방활동을 보다 실증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6년 4월

11일 UL, VdS 등의 선진 보

험시험연구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내·외 각종 규격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업무, 우수방화제품에 대한 FILK품질인증업무, 중소기업청 산·연 협동 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업무, 위험진단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재대책을 제시하는 방재컨설팅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부 지정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방재기술실무교육업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지정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의 화재안전분야 표준개발업무와 국제표준화기구 화재안전분야 등에 대한 간사기관활동 등 대외 기술 협력업무도 수행 중에 있다.

대내외 공신력 확보를 통한 신규 업무 및 시장 개척

방재시험연구원은 손해보험산업의 과학화라는 연구원 설립 모토에 정합하고 협회의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화재원인조사업무를 개시하고, 손해보험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재현장조사, 화재조사 문건분석 및 화재재현실험 등의 형태로 화재원인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화재 및 폭발사고에 대한 보다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12월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화재원인조사 업무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 국토해양부 및 미국해안경비대(USCG), 영국(LR) 및 프랑스(BV) 등으로부터 선박용품의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래로 그 기술력과 공신력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글로벌경제시대에 걸맞게 시험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한 결과, 터키에서 직접 선박용품의 내화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세계 시장으로 시험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시험과 연구의 원천기술을 활용, 위험관리기법을 토대로 방재컨설팅 업무 수행

2007년 한국 컨설팅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곳 방재시험연구원은 고품질의 최적화된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시험·연구 등의 중심업무와 컨설팅업무를 융합하여 화재 시 대규모의 손해가 예상되는 산업시설, 대형 건축물 및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기간 시설물 등에 대한 설계 도면검토 및 준공 전 안전진단, 화재위험진단, 화재안전성평가 등 다각화된 방재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연구의 실증적 원천기술과 화재보험 관련 위험관리기법의 토대 위에 구축된 고도의 방재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전 세계에 서 이곳이 유일무이하다. 또한 실제 실습실을 구축하고 있어 교육생들이 사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소방설비에 대한 직접 조작훈련이 가능하여 많은 호응도 얻고 있으며 노동부로부터 화재소방분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소방입문자, 현장실무자, 전문가 등 각 업무특성과 개인별 수준에 적합한 과정을 개설하여 화재소방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화재안전분야 국가표준 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터

국내 화재관련 분야는 예전보다 발전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ISO, UL, ASTM 등과 같은 외국표준을 절대 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이에 방재시험연구원은 건설분야의 화재안전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 기술표준원의 계획 하에 화재안전분야 표준개발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할 수 있는 화재안전분야 국가표준 선진화와 민간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예정이다.

〈취재/글 임재근 기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낳는 화재사고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천 코리아 2000 냉동창고', '용인 고시텔', '서이천 물류창고' 등 많은 인명이 희생된 대형 화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안전의식 부재, 제도적 허점 등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현장감이 결여된 화재안전 기술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화재 관련 시험 및 연구는 실제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의 일부분을 단순화하여 측정하거나 가설을 증명하여 이론을 정립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시키고 보다 가상현실을 반영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방재시험연구원은 고귀한 생명과 행복한 생활을 지속시키는 터전을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형 화재사건 발생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윤 방재시험연구원 원장

